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호 【루게 제 25521호】 주제 106 (2017)년 1월 12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나라 김치공장의 전변된 류경김치공장을 본보기, 표준으로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나라 김치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류경김치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안정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인 조용원동지, 신단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지난해 6월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설계자, 시공자, 운영자들도 미처 느끼지 못하고있던 생산공정의 불합리한 개소들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200일전투기간에 바로잡을데 대하여서와 공장을 우리 나라 김치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판찰에 한사할같이 면허나신 해당 부문과 공장,련판단위의 일군들,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 군인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줄기찬 투쟁을 벌임으로써 연건추면적이 1만 6,130여㎡에 달하고 연간 2,000여t의 김치, 2,000여t의 장절임, 200여t의 버섯가공품을 생산하는 류경김치공장



말씀하시였다.

생산현장의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하고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생산공정과 복도를 격제시키고 발효실, 숙성실, 포장실을 완성공정과 하나로 잇달아 배치하였으며 김치종합분석기 등 첨단수준의 분석설비들을 갖춘 실험분석실도 훌륭히 꾸려놓았다고 하시였다.

제품기본실에 통배추김치, 석박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어린이영양김치, 콩나물김치, 오이김치, 깍두기, 무우장절임, 버섯장절임 등을 진렬해놓았는데 가지수가 정말 많다고, 상표도안도 멋있고 포장도 잘했다고 말씀하시였다.

류경김치공장개작공사는 기술공정설계를 앞세우고 건축설계를 따라세우는것을 비롯하여 설계와 시공, 운영단위의 3자합의를 강화하여야 노력과 자재, 자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새로운 산업건물을 일떠세울 때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불과 반년사이 류경김치공장이 지난해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모든 생산공정들이 치차처럼 빈틈없이 잘 맞물려졌다고, 자동화, 흐름선화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실현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한 현대적인 공장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또 하나 일떠세웠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2 면으로 계속

의 방대한 개작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준비하게 늘어난 남새은실들과 넓은 면적의 남새포전 한가운데 자리잡고있는 류경김치공장에서는 지금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인 갖가지 김치와 장절임들을 평평 생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치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류경김치공장에 모시고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훌쩍변해 보신 김치와 판편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깊은 감회속에 한자한 자 읽어보시고 김장준비풍경을 보여주는 반경화를 바라보시며 생동하다고, 향긋하게 잘 익은 김치맛이 떠올라 군침이 절로 돈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공정 및 설비들의 기술적특성, 제품의 가지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치생산을 공업화하기 위해 생산조직과 경영활동, 품질관리,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도록 통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리

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배추와 무우를 지하에서 승강기와 수직콘베어를 통하여 공급할수 있게 하였으며 배추자동공급기, 무우자동공급기, 깍두기절단기, 용기세척기, 양념공급기, 전공포장기 등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른하게 갖추어놓음으로써 운반과 절단, 절임, 세척 등 생산공정들에서 손로동을 극력 줄일수 있게 되었다고, 정말 희한하다고 하시였다.

고도로 자동화, 로봇화된 설비들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우리의 로동계급이 제작설치하였는데 우리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착상이 기달하며 뛰어난 재건을 가지고있다고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 김치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문명수준에 맞게 김치를 맛있게 만드는것은 민족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민족전통음식이며 세계 5대건강식품으로 유명해진 김치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식품으로 당당히 자랑할수 있게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류경김치공장이 최한하게 전변될수 있는것은 경공업부문의 일군들이 우리 인민들을 위한 김치공장은 세계에서 제일 으뜸이어야 하며 흠잡을데가 없어야 한다는 당의 의도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당정책을 조항조항 따져보면서 그 판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려오시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올해의 총진군경에서도 마음속신념때를 더 바짝 조여대고

내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제품들이 폭포처럼 쏟아지는것으로 새해의 첫 대문이 열렸다고 하시면서 경공업부문에서 일어나고있는 자랑찬 성과를 통하여 인민들은 모든것이 유족하고 문명한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의 신심과 락관을 더 깊이 새겨간게 된다고, 올해를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기적에

되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김치생산의 공업화, 과학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류경김치공장을 본보기, 표준으로 하여 각 도들도 현대적인 김치공장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류경김치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본분을 다해 감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류경김치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을 위한 열사부부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속에서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지보도반

## 사 설

#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일심단결은 주체조선의 생명이며 비약의 원동력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정당, 전군, 전민이 원대한 포부와 필승의 신념으로 새해의 행군에 삼악같이 변천하였다. 승리의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혁명의 전성기를 대연경기로 이어나가는 천만군민의 영웅적 기개는 최세의 천승위인을 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긍지의 거대한 불꽃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병도따라 일심단결의 위력을 단방에 더욱 힘있게 떨치며 사회주의의 승리적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불타는 결의를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심단결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일심단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가분적위력이 있습니다.》

혁명만 단결이고 단결은 승리의이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만 있으면 대적의 덤벼들어도 두려움없이 없고 세상에 못배런 일도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말씀하시듯이, 도덕의 리적으로 굳게 결속된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지금 원수들을 진통케 하고있으며 세계를 경탄시키고있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병도자와 인민의 사상과 뜻,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함께 헤나가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일체, 행동의 통일체이며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무적의 성채이고있다. 세상에 불도 없는 이 위대한 단결로 하여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이 굳건히 담보되고 백두산 대국의 앞길에 끝없이 장장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백두의 행군길을 곳곳이 이어나갈수 있게 하는 힘

있는 원동력이다. 피어린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려지고 혁명의 준엄한 난대들마다 그 순결성과 계승성이 전격히 고수되어온 일심단결의 고귀한 전통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피줄기로 되고 있다. 수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우리 일심단결은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두단계의 사회혁명에서 자랑한 승리를 안아오고 이 땅우에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세계적인 인민의 행군길을 가로막을 힘은 없었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백두의 혈통을 꽃피어 이어온 우리의 단결의 중심도 확고부동하며 혁명대오의 사상적순결성도 변함이 없었다. 오늘 백두의 천승명정의 발걸음과 바보무덤의 나이가 우리의 행군길을 병도자의 두리에 전제 군대와 인민이 천군만군의 천연요새를 이룬 혼연일체의 행군길, 일심단결의 대진군길로 수놓아지고있다. 지난해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함께 당을 따라 영원히 주체의 한길로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었다. 위대한 수령님 따라 시작하고 위대한 장군님 따라 승리할것은 백두의 행군길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병도따라 뜻이 이어가려는 천만군민의 단결을 억척불변이다. 당과 사상도 뜻도 의지도 하나가 되어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력사에 류례없는 단란시절을 과감히 헤쳐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행군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백두의 행군길은 우리의 영원한 전군로, 불변제도이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위대한 변혁의 시대를 펼쳐나갈수 있게 하는 위대한 추동력이다. 단결은 강국건설의 초석이며 역원 힘이다.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

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며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렸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인민군대가 앞장서서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였으며 군인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시대에 일제히 없었던 인민의 새 력사를 창조한 지난해의 투쟁은 일심단결이아말로 비약의 원동력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당의 부름이러면 한마음한뜻으로 똘똘히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후적기질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뎠는 심장마디에 받아안고 강성변명의 휘황한 때를 앞당기기 위한 전진의 모퉁이를 다그쳐 내걸고있다. 5개년 전략과지를 집행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성강의 로동대군이 첫날부터 주체철생산 1.2배로 높여왔으며 많은 방의 청정광을 생산한 높은 목표분 내세운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로동대군이 42만산대발과를 진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후성과를 확대하며 창조와 혁신의 풍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오직 병도자의 뜻과 의지로 승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올해에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대비와, 대혁신을 이룩하며 승리와 변혁의 영웅사시기를 수놓아갈것이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반제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백승을 펼쳐나갈수 있게 하는 강력한 보검이다.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판을 치는 오늘날의 국제무대에서 빛나는 북극대단한 사대들은 단결의 귀중

함을 피의 고통으로 새겨주고있다. 병도자를 중심으로 군인이 굳게 결속되지 못하면 조국과 민족의 운명도, 혁명의 진취성도 수호할수 없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위대한 변혁을 안아온 지난해 2016년은 우리 인민들에게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 세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들을 수치스러운 파멸의 길에 몰아넣었으며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비상이 높여준 눈부신 기적과 승리의 해로 빛나고있다. 주체조선의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남과 남을 힘차게 싸우며 우리 조국이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오르고 인민사수진, 인민부무원의 남과 남을 힘차게 싸우며 북부피해부지역에서 전화위부의 기적적승리가 이룩되었다. 이 모든 것이적인 성과들은 조선의 결집을 굳게 묶어준 위대한 혁명적위력으로 맺어준 천만군민의 당중앙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남로 악랄해지는 비세력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박정책을 단호히 짓부셔며 백두산대국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고있다. 혁명의 원수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수형위위, 조국사수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병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치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영웅한 인민군대가 당중앙을 옹위하는 성채, 방패가 되어 무적강군의 정치사상적면모와 군사기술적준비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고있으며 전제 인민이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사회주의조국수호에 한몸바치고있다. 세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군사적위협도, 비협하고 끈질긴 심리박탈전도 우리의 위업을 좌절시킬수 없으며 우리 세대를 위해서인수 없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통탈할수 없다. 우리는 지난해과 마찬가지로 앞

으로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원수들의 정수리에 무자비한 철추를 안기며 반제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전면전승만을 이룩할것이다.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우리 조국으로 솟구쳐오르고 인민사수진, 인민부무원의 남과 남을 힘차게 싸우며 북부피해부지역에서 전화위부의 기적적승리가 이룩되었다. 이 모든 것이적인 성과들은 조선의 결집을 굳게 묶어준 위대한 혁명적위력으로 맺어준 천만군민의 당중앙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남로 악랄해지는 비세력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박정책을 단호히 짓부셔며 백두산대국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고있다. 혁명의 원수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수형위위, 조국사수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병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치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영웅한 인민군대가 당중앙을 옹위하는 성채, 방패가 되어 무적강군의 정치사상적면모와 군사기술적준비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고있으며 전제 인민이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사회주의조국수호에 한몸바치고있다. 세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군사적위협도, 비협하고 끈질긴 심리박탈전도 우리의 위업을 좌절시킬수 없으며 우리 세대를 위해서인수 없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통탈할수 없다. 우리는 지난해과 마찬가지로 앞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신분투할 것이며 리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총적하게 말보어나가는 인민의 창천, 총부, 총심신부 품군이 필것을 엄숙히 맹약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같이 새겨야 한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인민관, 인성관을 세질화하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부부함으로써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로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언제나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농동지와 같이 지켜나가기 위하여, 당과 혁명대에 지닌 승고한 장악을 깊이 자각하고 대오의 앞길에서 대중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어야 한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각종 당조직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한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도높이 벌려나가기 위하여,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8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고 혁명적정치사상사업을 박력있게 진행하여 천만대중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당사업에서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일심단결의 화원을 어지럽히는 독초인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야 한다. 모든 초급당조직들은 제1차 전당 초급당위헌정대회의 기본정신을 구현하여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이 세계를 나날이 높여야 한다. 근로단체조직들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어 모든 동맹원들이 일심단결의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기도록 하여야 한다. 모두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기















